



동신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15개국 1천37명으로 지난해(693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진은 학교 국제교육원이 최근 이틀간 중앙도서관 동강홀에서 진행한 외국인 신입생 동기 유발 캠프. <동신대 제공>

# 동신대, 외국인 유학생 1천여명... '글로벌 캠퍼스' 박차

### 3월 기준 중국·베트남·네팔 등 15개국 1천37명 최근 이틀간 신입생 캠프... 고충 해결방법 등 안내

동신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 1천명을 돌파하며 글로벌 캠퍼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동신대학교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유학생 수는 1천37명으로 지난해 693명에 비해 49% 증가했다. 국적도 중국, 베트남, 우스베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몽골 등 15개국으로 다변화하는 추세다. 학생 구성별로는 학부생이 418명, 대학원생 48명, 한국어연수생이 130명으로 대학원생 비중

이 가장 높았다. 올해는 학부생 132명, 대학원생 150명 등 282명이 입학해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동신대 국제교육원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중앙도서관 동강홀에서 외국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기유발 캠프를 개최하고, 유학·대학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 3개 언어 트랙으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수강 신청, 학습관리

시스템 이용법, 학교 시설과 학과 소개, 교육과정, 졸업 요건,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유학생들이 자주 겪는 고충 해결방법과 자기 주도형 대학 생활 비법,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뒷받침해줄 비전 설계 팀에 대한 지도도 병행했다. 유학생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생생하게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K-팝을 선도하는 동신대 공연예술무용학과 재학생들이 축하공연을 선사하며 유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동신대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대신손촌 문화재단이 쾌척한 10억원의 기부금과 대학 예산을 투입, 지난해 유학생 전용 기숙사인 대신 국제관을 리모델링했다. 쾌적한 숙소와 스티디

룸, 조리가 가능한 식당, 유학생 라운지 등을 갖추고 있어 유학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 적응 프로그램, 정보화 언어 적응 등 학습지원 프로그램, 취업캠프, 학생회 운영 등 탄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각자의 꿈을 실현하고, 대학과 지역 사회 발전을 선도할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유학생 확충을 통한 캠퍼스의 글로벌화와 함께 국내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추진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가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대기자

# 김영록 지사 "지역 이끌 산업역군 성장 적극 지원"

### '세계여성의날' 조선업 여성접사들과 간담회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8일 116번째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남권 조선산업의 숨은 영웅인 여성 용접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성 근로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격의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날 소통간담회는 미국 여성 노동자의 차별 철폐 요구에서 시작된 세계 여성의 날 취지에 깊이 공감, 현장에서 소통하겠다는 김영록 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유인숙 유일 대표이사, 조선업 여성 용접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용접사들은 서남권 조선업



계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베테랑들이다. 이들은 10여년의 긴 불황을 뚫고 호황기에 진입한 조선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정기자

그동안 거칠고 힘든 남성의 영역으로만 인식됐던 조선업에도 상당수 여성이 종사하고 있다. 스마트 야드(Smart Yard)로 대표되는 자동화, 디지털화가 진행될수록 여성 인력 유입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현대삼호중공업에만 1천170여명의 여성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숨겨진 불평등 사례와 인권 침해 등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드러내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적극 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앞으로는 섬세함, 포용력, 감수성이 중요한 여성의 시대가 될 것이며, 이 같은 추세는 첨단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여성이 충분한 기술 역량을 갖춰 지역을 이끌 산업역군으로 성장하도록 전남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정기자

# 전남도-시·군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 박정보 전남경찰청장, 목포·나주서 치안 간담회

전남도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8일까지 이틀간 진도 솔비치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2024년 전남도-시·군 자원봉사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전남도, 시·군 자원봉사 담당과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등 150여명을 비롯해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중앙자원봉사센터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조원태 행안부 서기관의 중앙부처 자원봉사제도 개선 방안 안내, 중앙자원봉사센터장의 2024년 자원봉사 센터링, 전남도 자원봉사 정책 소개, 시·군 우수 프로그램 발표, 전국소년(장애학생) 체전 성공 다짐 등 중앙정부와 전남도의 자원봉사 시책 간 유기적 교류 장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범국민적으로 추진하

박정보 전남경찰청장이 최근 목포경찰서와 나주경찰서를 찾아 현장 치안 간담회를 가졌다. 10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박 청장이 목포를 방문, 현장 직원들과 정성 치안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폴-투게더 ▲정성 치안 주민 간담회 개최 ▲민간단체 협업 실종자 수색 방안 추진 ▲교통 안전 목포시민연합회 운영 등 '목포경찰서 정성치안 추진'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정성·참여치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목포경찰서 협력단체장 9명과 전남 치안 환경에 대한 공동체 치안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앞서 박 청장은 나주경찰서를 찾아 장진영 나주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서 지휘부와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참여 정성치안 주요 시책, 치안 강화 방안, 현장 경찰관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했다. /목포=정혜선 기자·나주=정종환 기자

# 진도군, 전 주민 대상 사랑의 헌혈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이하 광주전남혈액원)은 "최근 진도군이 전 주민이 참여하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체헌혈 행사는 군정 민원봉사과 일원에서 광주전남혈액원이 제공한 헌혈 버스를 통해 이뤄졌다. 진도군은 분기별 단체 헌혈 행사를 보건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100여명의 주민이 헌혈에 참여했다. 박진순 진도군보건소장은 "현재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헌혈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며 "지속적인 홍보와 단체 헌혈을 통해 지역 내 헌혈 문화가 더욱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혈액원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행복한세상만들기운동협의회(회장 박노창)는 지난 9일 광주 도심 등산로 주변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 북구 군왕봉, 삼각산 등산로 인근에서 '꽃무림시기 봉사'를 진행했다. <행복한세상만들기운동협의회 제공>



# 영광경찰 "박정보 전남청장, 군 노인회와 소통"

영광경찰서는 "최근 박정보 전남경찰청장 등과 함께 영광군 노인회관을 찾아 초고령사회 맞춤형 정성치안에 대해 안내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소통회에는 박정보 전남경찰청장과 박삼서 영광경찰서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장, 영광군지회 영광읍분회장, 노인대학장, 사무국장, 총무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학실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장은 "영광경찰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안전함을 느끼고 있으나 보이스 피싱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보 전남경찰청장은 "노인 학대, 교통사고,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치안 여력을 수렴했고 영광경찰서 '세이프 케어 팀'의 활동을 통한 맞춤형 보이스 피싱 예방 교육·홍보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영광=김동규기자



# 강진 읍내지구대, 주민 참여 야간 합동순찰

강진경찰서 읍내지구대는 "최근 주민 참여 치안 활성화를 위해 자율방범대와 함께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순찰은 치안 수요가 많은 범죄 취약 지역과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파악, 범죄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김형주 읍내지구대장은 "앞으로도 매주 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을 하며 치안 파트너 협력 강화·범죄로부터 안전한 강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기자



# 무안경찰, 청소년 비행 예방 합동순찰

무안경찰서는 "최근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한 유해 환경 취약지 집중 지도·단속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 순찰은 최근 관내 청소년들의 술·담배 관련 비행 신고 증가와 중독성이 강한 사이버 도박 참여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강윤준 무안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체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성호기자



# 담양경찰, 모범운전자 합동 음주단속

담양경찰서는 "최근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범운전자 등 치안 파트너들과 협업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권현오 담양경찰서장은 "치안 파트너들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음주운전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